국가보훈처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www.vnet.go.kr

사회로 통하는 지름길

제대군인 지원센터

1666-9279 군인 친구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취·창업상담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식 서비스 제공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사회적응 교육, 창업워크숍 등

직업훈련
위탁 교육,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교육
자격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멘토링상담
온·오프라인 성공 제대군인 멘토 실전 경험 전수



-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6층
  (근화동)
-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8월호 Vol.186

든든한 보훈 국가보훈처

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8월호
Vol.186



김윤권
예비역 육군 소령

QR코드를 통해
<다시 웃는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heme Essay

역량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역량.
매 순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훌륭한 결실을 맛보면 좋겠지만,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듯, 역량이 부족해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좌절은 결국 포기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죠.
마하트마 간디는 "힘은 육체적인 역량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갖는다면 포기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의지를 갖고 역량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66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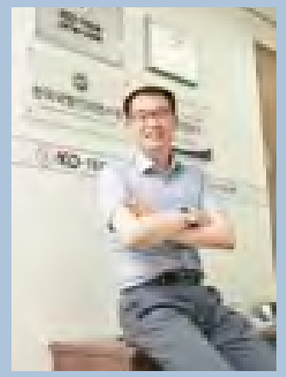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中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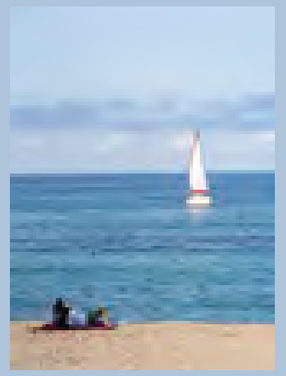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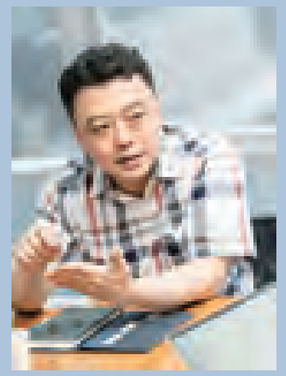
출처: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스틸 이미지



Cover story
강원북부교도소를 지키는
김윤권 방호원의 선한미소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권
186호
발행일
2021년 8월 2일
발행인
황기철
발행처
국가보훈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1~2, 5728~9)
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www.kyungsungmedia.com

www.facebook.com/mpvakorea
twitter.com/hun2day
www.youtube.com/user/mpvakorea
blog.naver.com/mpvalove
mpva.tistory.com
www.instagram.com/bohun_story

<다시 웃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AUGUST
2021
vol.186

Begin Again
새로운 시작

06 **테마 스토리**
해리 포터를 키운 마법사
조앤 K.롤링

08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성공으로 가는 제1의 법칙
역량을 쌓고, 발휘하라!
-예비역 육군 소령 김윤권
강원북부교도소 방호원

12 **직업의 세계**
미래 新 유망직종
'과학에 주목하라!'

14 **희망드림 상담소**
아파트 특별공급 어떻게?

16 **잡학사전**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지원사업

Climactic Moment
절정의 순간

18 **제군 어벤져스**
열정, 책임, 균형 감각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하다
-예비역 육군 소령 전홍준
㈜케이디텍 경영지원부 부장

22 **내일의 터전**
광케이블의 최강을 일구며
제대군인과 동행하는 일터
-(주)지오씨 지홍석 차장

26 **제대로 알림**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28 **성공의 법칙**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교육

Happy Ending
행복한 결말

30 **스타트업**
깨끗한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레미디

32 **그곳에 가다**
눈부시게 푸르른 바다 따라
흐르는 멋과 낭만
-강릉

36 **라떼 이야기**
만화로 보는 군 생활 추억
-비상착륙

38 **맞았군! 틀렸군!**
시간이 흐른만큼 군대도 변한다

40 **NEWS DESK**
이달의 제대군인지원센터
주요 소식

42 **어바웃 타임**
생활정보와 독자 퀴즈

해리 포터를 키운 마.법.사.

조앤 K. 롤링(Joan K. Rowling)



투명망토를 쓰고 마법학교 안팎을 종횡무진하는 <해리 포터> 시리즈는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꼽힌다. 해리 포터를 키운 진짜 마법사 조앤 K. 롤링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도 소설 못지않게 흥미롭다. 끊임없이 자신의 작가적 역량을 끌어올리며 마법 같은 성공 신화를 이뤄낸 그녀 덕분에 동시대 어린이와 '어른이'들이 함께 꿈꿀 수 있었다.

글 윤진아 / 일러스트 비올라

저런, 또 공상에 빠져 있나요?

조앤 K. 롤링의 삶은 불운과 역경의 롤러코스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런던 국제사면위원회 본부 비서로 근무하다 '소설 쓸 공상만 한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맨체스터 상공회의소 사무직원을 거쳐 포르투갈의 한 영어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혼 후에는 생후 4개월 된 어린 딸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와 남루한 방 한 칸을 얻어 삶을 이어갔다. 극빈자 가정에 지급되는 수준의 정부보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롤링은 집 근처 카페를 전전하며 글을 썼다. 시련의 시간을 견디며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탄생한 건 무려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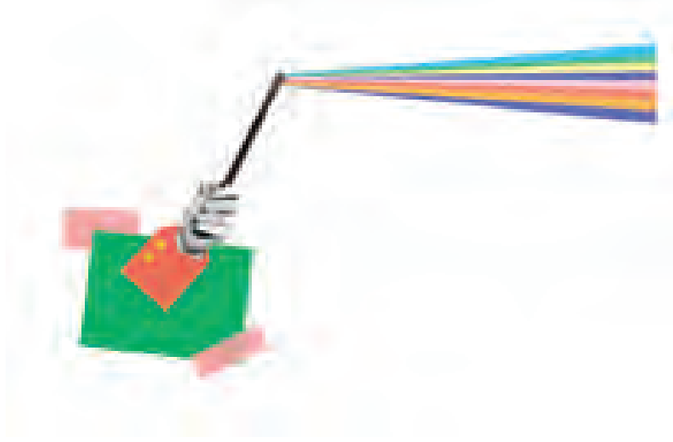
끊임없는 역량 개발로 만들어간 작가의 길

열차 고장으로 4시간 동안 시골의 한 간이역에 발이 묶였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공상에 잠겼던 롤링에게 불현듯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마법학교에 가게 된 소년'. 롤링은 이 소년이 11세부터 17세까지 다니는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학년에 한 권씩을 배당해 일곱 권짜리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다. 첫 편인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원고 앞부분은 일일이 타자기로 쳐서 견본을 몇 부씩 만들었다. 복사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고를 옮겨 쓰다 중간중간 해리 포터의 모습과 간단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 넣기도 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서였다.

1997년 첫 소설이 출간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해리 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70여 개 언어로 번역돼 5억 부 넘게 판매되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후 영화, 뮤지컬, 게임, 캐릭터 상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21세기는 해리 포터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켰고, 지구촌의 수많은 '해리 포터 키즈'에게 막대한 정서적·문화적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해리 포터 시리즈는 출간될 때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목록을 장악했으며, 예약 판매만으로도 몇 달간 판매량 1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세계 각지의 열혈 독자들은 책을 읽느라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책을 사서 보기 위해 서점 앞에 줄을 서곤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 인터넷에는 다음 줄거리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나돌았다. 영화 또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저명한 영화감독이 번갈아 메가폰을 잡았고,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기꺼이 조연으로 출연했으며, 주연 배우들은 삽시간에 큰 명성을 얻었다. 2018년부터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는 6개의 토니상을 수상하며 연극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작품에 올랐다.

> 66
> 세상을 바꾸는 데 마법은 필요하지 않다.
> 마법의 힘(역량)은 누구에게나 있다.
> 그 힘을 발휘하여 현실로
>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조앤 K. 롤링 99



마법의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불운한 싱글맘이었던 조앤 K. 롤링의 현실에도 마법 같은 변화가 펼쳐졌다. 롤링은 엑서터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앤드류스대학교 등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올해의 작가상을 포함해 4년간 무려 21개의 문학상을 휩쓸었다. 영국 왕실에서는 조앤 K. 롤링에게 작위를 수여했고, 대영제국 훈장도 받았다.

조앤 K. 롤링의 작가적 역량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는 전 세계 독자들은 여전히 그녀의 펜 끝을 주목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죽을까 봐 걱정된다"고 종종 토로했던 롤링은 "세상을 바꾸는 데 마법은 필요하지 않다. 마법의 힘(역량)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 경종을 울린다.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좇아 부단히 역량을 끌어올린 조앤 K. 롤링의 인생은 이제 많은 사람이 잘 아는 성공 신화가 되었다. 한때 자살을 고민했을 정도로 암울했던 고난의 시기를 스스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로,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자로, 자선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조앤 K. 롤링의 이야기가 독자에게도 마법 같은 반향을 일으키길 기원한다.

성공으로 가는 제1의 법칙!

역량을 쌓고, 발휘하라!

예비역 육군 소령 김윤권
강원북부교도소 방호원

성공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노력해야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역량을 쌓으며 성공에 차츰 더 가까워지고 있는 김윤권 방호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 **영상** 고인순

QR코드를 스캔하면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생생한 촬영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Talk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00년 대학시절 친구의 권유로 3사관학교에 동반 편입해 장교로 임관해서 2019년 말까지 17년 8개월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전역 후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강원북부교도소는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저는 방호원으로서 교도소 외부 정문 출입 관리 및 울타리 안전점검과 민원실 내 수형자 접견인 안내 및 통제임무를 수행하죠. 대부분의 업무가 군 복무 시절의 인사·정보·작전 분야 기본업무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군 시절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또 다른 업무는 교도소를 찾는 접견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Q. 언제, 어느 부대에 입대하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제대하신건가요?

A. 2002년 임관하여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소대장과 기계화학교 교관 여단 군수장교 및 본부대장, 필리핀합동지원단 인사장교, 대대 작전과장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기갑여단 정보참모를 마지막으로 2019년 말에 소령으로 제대했습니다.

Q.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했을 때 가장 도움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린 건 전직지원금 관련 문의와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바리스타 교육 등 창업교육 지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분야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님께 강원북부교도소 채용 안내를 받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았는데요. 상담사님께서 작성요령에 대한 상세한 지도와 교정 작업, 최종 면접까지 1:1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격자 발표 날까지 맞추어 전화도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제대군인들은 꼭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Q. 향후 목표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부끄럽지 않은 남편,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행정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100세 시대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제대군인 후배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큰 성과를 거두려 하면 자칫 더 큰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대 후에는 모두 사회초년생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하나 완성해 가며 성취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성취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완성해 가며
작은 목표부터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여러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이 특징.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고용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글 편집실

미래 新 유망직종 '과학에 주목하라!'

Future Job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 직업



66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겨날 미래의 직종은 다양하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미래 유망 직업을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빠른 변화의 흐름을 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99

Future

생물정보학자

생물정보학자는 생물학 관련 데이터를 수집, 컴퓨터로 유전자에 담긴 정보를 정리, 분석,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하지만 유전자는 암호 같아서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생물정보학자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수학, 화학, 컴퓨터공학 등의 학문을 동원하여 유전자의 암호를 푼다. 유전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생명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다.





가상현실개발자

가상현실개발자는 3D모델링 및 VRML 등의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시공간에서 자유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응용 분야(게임, 비행기 조종훈련, 가상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가상시스템을 개발한다. 대학, 전문대 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전산, 정보처리 등을 공부한 후에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실무능력에 따라 취업과 성공이 결정된다.

New Job

이산화탄소 포집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연구원은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수송·저장기술자와 전환·활용기술자. 수송·저장기술자는 낮은 비용으로 수송·저장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자와 산업체에서 설계·시공·운전을 한다. 전환·활용기술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바이오 연료, 고분자, 무기물질 등의 유용한 유·무기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유전체분석사

생물의 유전체정보를 조합하고 효과적인 분석법을 개발하여 분석한다. 환자 맞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인간 또는 동물과 식품의 유전체로부터 DNA 서열 정보를 분석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를 위해 통계 소프트웨어,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기법 등을 사용하여 생명정보 데이터를 분석·조작한다.



Solve the Problem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어떻게?

아파트 특별공급 종류와 신청 가능 횟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5년 4개월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전역 후 부산 모 주민센터에서 예비전력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마련을 꼭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만 신청해야 하는지요? 여타 특별공급 종류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특별 공급의 우선순위와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당첨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여러 가지 특별 공급 제도는 몇 번이나 활용할 수 있는지 신청 가능한 횟수도 알려주세요.

※ 희망드림 상담소에서 솔루션 받기를 원하시는 제대군인은 **vnet5729@gmail.com**으로 고민거리를 보내주세요.

솔루션 제공 / 정숙희(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주택청약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제대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데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청약 시장 인기가 높은 요즘은 1순위에서 거의 모든 주택이 마감되므로 1순위 자격 조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분류되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광역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됩니다.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통장을 구비하고 조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공급보다 먼저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의 종류는 다양한데 공급 세대수, 대상자 및 청약 자격 사항 등의 청약 조건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당첨이 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을 제외하는데 서울과 같이 분양가가 높은 곳에서는 특별공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례

특별공급의 당첨 확률은 시기, 지역, 단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무지가 부산인 점을 고려해 2020년 9월 청약이 진행되었던 부산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제2구역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은 매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거의 1:1 수준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고려한다면 기관추천이 가장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의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복무를 마치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접수를 하면 바로 기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복무기간, 전역기간 등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면 해당 기관에서 순위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기관추천은 대상자가 공급물량에 맞게 배정되므로 추천을 받는 것이 곧 당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기관추천 순위가 밀려 당첨 가능성이 낮다면 다른 특별공급 조건도 살펴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표 1. 특별공급의 종류 및 주요내용

구분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가능	전용 85㎡ 초과 가능	전용 85㎡ 이하
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무주택 선납금 600만
청약자격	무주택	무주택 & 소득기준	무주택 & 소득기준	무주택 & 소득기준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선정방법	관련기관 장이 결정	경쟁시 미성년 자녀 수	다자녀 배점 결정	국민주택 : 저축총액 多, 민영주택 : 가점제	경쟁 시 추첨

표 2. 거제2구역 84타입 해당지역 특별공급 청약경쟁률

주택형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기관추천
084.8261A	438	배정	65	246	29	98
		접수	321	2,887	255	93
		경쟁률	4.9:1	11.7:1	8.8:1	0.94:1
084.9823B	479	배정	72	268	32	107
		접수	486	5,341	290	103
		경쟁률	6.7:1	19.9:1	9:1	0.96:1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지원사업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귀촌인에 대한 창업 중심 실무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

지원개요

- (지원 대상) 귀촌 후 5년 이내(농산업 분야 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 7년)인 자
- (지원 규모) 교육생 총 400명
  - 교육운영비(20명 기준) : 22백만 원 내외(직접교육비 내 자부담 30% 별도)

교육과정

- (교육내용) 창업에 도움이 되는 농산업 관련으로 교육기관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운영

구분	유형1		유형2	
교육 과정	교육기관 자체과정 (이론, 실습, 컨설팅)		귀촌인 창업교육 표준(공통, 특화)과정	
교육 내용	농식품 가공	+	농산업 가공	공통과정 + 식품가공
				공통과정 + 비식품가공
	농식품 유통		농산업 유통 및 판매	공통과정 + 농산물 저장
				공통과정 + 국내 유통
				공통과정 + 수출 및 무역
	농촌관광		농산업 6차 서비스	공통과정 + 농촌 체험 및 교육서비스
				공통과정 + 치유농업 서비스
				공통과정 + 반려동물 서비스
	서비스		농산업 지원 서비스	공통과정 + 농산업 경영지원
				공통과정 + 농산업 인적자원관리
				공통과정 + 농산업 인프라

- (교육시간) 80~100시간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1년 8월까지(교육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에서 교육일정·과정 확인



*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운영기관(2개소, 10개소 신규선정 예정)
  - 사단법인 한국농경문화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푸마시여주

사업절차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 (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 (교육기관) > 교육진행 (교육기관)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지원실 ☎ 02-2058-2853



열정, 책임, 균형 감각으로
함께사는 사회를 실현하다

예비역 육군 소령 전홍준
㈜케이디텍 경영지원부 부장



사회적기업의 미션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케이디텍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고 있다.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전홍준 부장은 리더십을 발휘하며 회사와 직원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는 중이다.

글 김주희 / 사진 정우철

장애인 직원과 함께하는 가치로운 일터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 260만 명, 이 중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70%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고용률은 1.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케이디텍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인 동시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일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사업 영역은 컴퓨터 제조 및 유통, 시험검정·센터 운용, 콜센터 운용, 건물 관리 용역 등으로 나뉜다.

"저도 군 생활 중 부상으로 전역을 했고,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죠. 새로운 일터를 알아보다가 지금의 사업장과 연을 맺었어요. 장애인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미션을 품은 기업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임관해 21년 동안 1군지사, 국군수송사, 계룡대근무지원단, 자이툰사단, 9사단, 20사단, 3군지사, 수방사 등에서 군 생활을 한 전홍준 부장. 지휘관과 참모직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업무 역량을 토대로 현재 사업 총괄을 도맡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군대에서 쌓은 차량 관련 특기 경력을 살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과 연구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씨앗이 발아하는 기쁨을 누리다

전홍준 부장이 ㈜케이디텍에 취업한 건 지난 2012년. 처음 입사 당시만 해도 직원 수 2명뿐인 기업이었다. 이제 막 출발선을 넘은 신생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했다. 그는 창립 멤버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회사가 차츰차츰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일조차 힘겨웠던 기업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는 최초로 서울 지역의 학교와 용역 계약을 맺는 등 성과를 쌓으며 탄탄한 내실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는 씨앗이 발아하기까지는 숱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했을 터. 전홍준 부장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단단히 잡으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했다.

"초창기에는 회사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무했던 터라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에 되레 경영관리의 A부터 Z까지 모두 배우고 흡수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취업을 할 때 회사 규모와 급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케이디텍의 직원은 700여 명에 이른다. 그중 제대군인 직원은 20여 명이며 군 출신 관리직 직원은 6명이다. 사무직과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다. 전홍준 부장은 같은 제대군인 출신으로서 책임의식을 지니고 현장을 이끄는 직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드러낸다.



선한

리더십



>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려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제대군인을 위해 재능기부도 하고 싶습니다.





일을 '찾아주는' 선한 리더십

전홍준 부장은 가장 궁극적인 업무 목표로 사회공헌과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손꼽는다. 회사의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케이디텍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다양한 장애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주는 것이 그의 임무다.

"말이 느린데 타자가 빠른 직원, 기억력이 탁월한 직원 등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맡기는 식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워크를 다지면서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금세 적응합니다. 처음에 3시간 일하던 직원이 차츰 근무 시간을 늘려가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 회사가 지닌 본연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홍준 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리더십의 세 가지 조건으로 책임, 열정, 균형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리더라면 책임지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가 노력하면 자연스레 직원들도 열정적으로 임하게 마련이거든요.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려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제대군인을 위해 재능기부도 하고 싶습니다." 취



광케이블의 최강을 일구며 제대군인과 동행하는 일터

㈜지오씨 지홍석 차장

광주에 자리한 광케이블 제조전문기업 ㈜지오씨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상생을 실현하는 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대군인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삶의 터전, ㈜지오씨를 찾았다.

글 김주희 / 사진 정우철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 강화

디지털 시대, 광범위한 데이터와 사람을 잇는 광케이블은 필수불가결한 산업 요소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지오씨는 다양한 광케이블과 광응용센서 제품을 선보이며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해왔다. 국내를 넘어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시장의 저변을 안정적으로 다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월드 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기도 했다.

대표 제품은 마이크로시스 광케이블과 고부가가치 제품인 원자력발전소용, 해킹 방지용 광케이블 등이다. 기술의 완성도와 높은 품질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오씨는 고부가가치의 특수목적용 광케이블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광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중이다.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해킹을 차단하는 광케이블을 개발하며 주목받았다. 광학식 수질 모니터링 센서, 혈관 내 혈압측정용 센서 등 광응용센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오씨는 탄탄한 경영 구조로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일터가 되어준다. 광주 지역의 기업 중 제대군인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에는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아 광주지방보훈청장 표창을 받았다. 인사 및 복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지홍석 차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

"2010년부터 제대군인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대군인과 함께하면서 신뢰를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은 결원이 생기면 일반 채용을 하지 않고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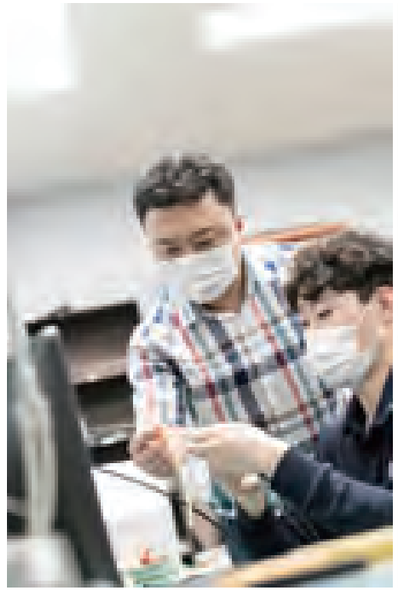


> 66
> **2010년부터 제대군인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대군인과 함께하면서 신뢰를 많이 쌓았습니다.**
> 99

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다

㈜지오씨에서 일하고 있는 제대군인은 10명이다. 국내 생산 및 자재, 품질 관리 업무를 도맡은 직원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법인에서 활약하는 직원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지홍석 차장은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이끌고 있다.

"직원 채용 때마다 센터로부터 훌륭한 인력을 알선받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날, 기업초청간담회, 멘토 특강 등에 참여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유익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제대군인 입사지원자들의 성향이나 취업 트렌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요."





> 66
> **많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할 때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오씨가 제대군인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싶습니다.**
> 99





제대군인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김민숙 기업협력팀장은 ㈜지오씨의 존재가 든든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편견 없이 기회를 열어준 덕분에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제대군인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없다면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홍석 차장님은 선입견 없이 제대군인을 채용하면서 많은 기회를 열어주지요. 특히 ㈜지오씨에는 제대군인 출신 선배들이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마음 놓고 취업하기에도 참 좋은 기업입니다."

지홍석 차장은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함께한 제대군인 직원들을 향해 믿음을 드러낸다. 성실함과 리더십으로 현장을 원활하게 이끄는 것은 물론 납기일 준수가 중요한 제조업 특성상 리스크를 줄여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제대군인 직원이 아주 작은 화재 발생 위험 요소를 재빨리 감지해 조치를 취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신속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역량도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다수의 제조업 현장은 위험 요소가 많다. ㈜지오씨는 상품 및 공정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지 않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은 직원들의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일터. 회사는 휴식 시간 제공이나 간식 등 세심한 배려로 업무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수평적인 소통문화 또한 강점. 각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팀원들과 수시로 면담을 진행하며 세대 간 차이를 좁혀 팀워크를 다진다.

㈜지오씨는 지난 4월에 구사옥에서 지금의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3배 확장된 규모로 새롭게 터를 잡은 만큼 지속적으로 매출 상승을 이끌어 직원들의 복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다. 제대군인과 오래오래 함께하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많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할 때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오씨가 제대군인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동료들이 많은 곳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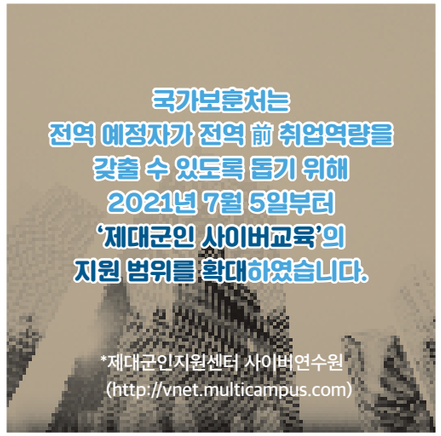
해외 시장을 겨냥해 마케팅을 확대하고 광기술 기반 응용제품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는 ㈜지오씨.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넓힐 때마다 제대군인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리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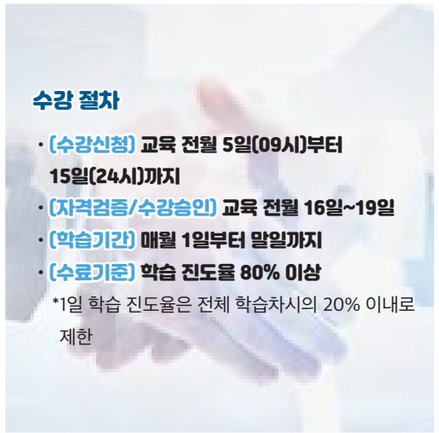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에게 취·창업 및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전문 기술자격, 외국어 등의 무료 사이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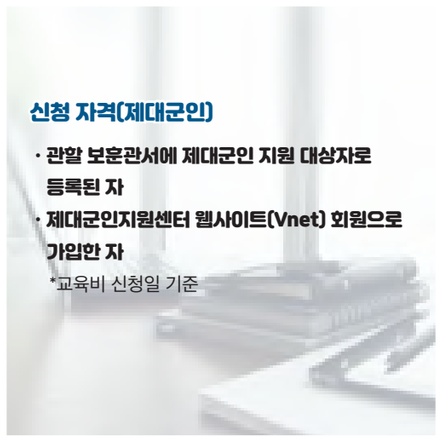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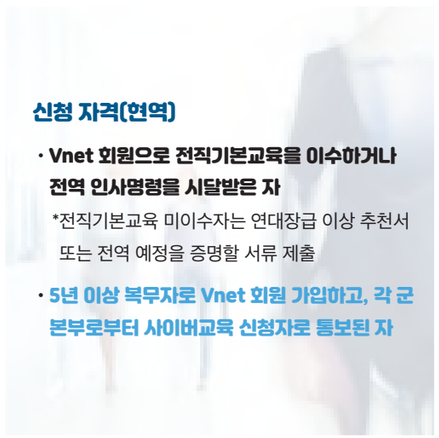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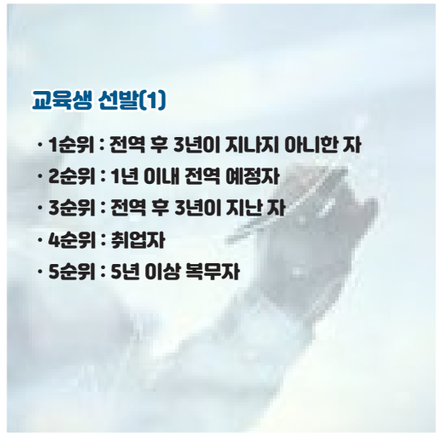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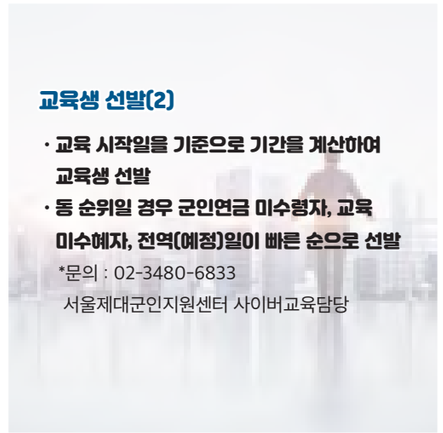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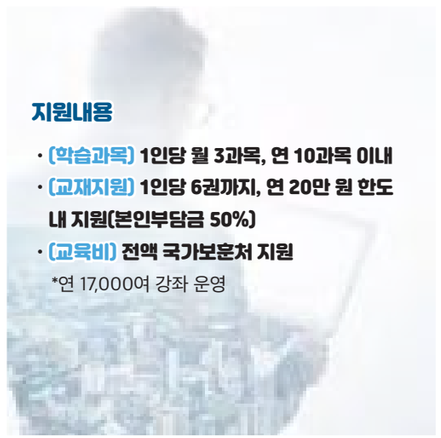
5



6



7



8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교육**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그 근간인 교육도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에듀테크(EduTech)’가 우리 삶 속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글 강진우(문화칼럼니스트)

TECHNOLOGY

EDUCATION

차세대 교육을 향한 혁신적 원동력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교육 환경 및 학습경험을 일컫는다. 에듀테크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교육현장에 투입해 편의성을 높인 수준을 넘어, 교육계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교육환경을 방송과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에듀테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걸맞은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덕분에 학습 효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 곳곳의 지식과 정보를 실감 나게 습득, 체험할 수 있다.

에듀테크는 심지어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무언가를 배울 때 교사의 강의를 통해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제각각 응용력을 기르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제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본 수업 시간에는 동영상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개개인의 객관적 학습 데이터를 축적·분석하고,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에듀테크를 적용하지 않은 주입식 교육 체제에서는 꿈꿀 수 없는 학습 풍경이다.

전 세계 교육계가 민관 할 것 없이 에듀테크를 지향하고 실행에 옮기는 만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기회의 폭도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 깊이 스며든 에듀테크

용어만 들으면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에듀테크는 우리 삶에 깊숙이 안착해 있다. 2012년부터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 공개수업)를 통해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교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의 플랫폼인 K-MOOC(www.kmooc.kr)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이러한 교육환경에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참여형 본 수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을 속속 적용하고 있다. 거꾸로 교실의 학습 효과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한편 에듀테크를 교육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시간 커리큘럼을 설계해 주거나, 저렴한 값에 일대일 화상 영어를 제공하는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부도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학교 구축사업에 힘을 쏟는 중이다.

전 세계 교육계가 민관 할 것 없이 에듀테크를 지향하고 실행에 옮기는 만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기회의 폭도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듀테크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 수단’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Remedy

해군 장교로 복무 후 백화점 MD 그리고 스타트업 레미디 창업까지. 레미디 김민희 대표의 인생은 늘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리사이클링 제품은 '찝찝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한국의 '프라이탁'을 꿈꾸는 레미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 편집실 / **사진 제공** 레미디



인스타그램: @reme2me

주소 : 제주시 중앙로 258 레미디 4층

Q. 레미디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A. Remedy는 '치료, 해결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소비'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 해결하는 소셜벤처입니다. 저희는 주로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폐기되어지는 재료들을 재사용해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레미투미'의 제품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Q. 창업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디자인, 패션에 관심이 많아 전역 후 백화점 바이어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리퍼브, 리폼'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업사이클'이란 개념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백화점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조사 및 연구를 하다가 이 분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창업을 했죠.

Q. 운영 중인 브랜드 레미투미를 소개해주세요.

A. 처음에 여러 가지 생활 폐기물로 작품을 만드는 핸드메이드 작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5성급 호텔 숍에 납품을 하게 되었죠. 거기에서 거의 새것처럼 보이는 시트와 이불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때 마침 저에게 반려견과 반려묘가 생겼어요. 반려동물들이 시트 위에서 잠도 자고, 노는 모습을 보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게 레미투미의 시작입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함께 5성급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레미투미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에게 5성급 호텔의 편안함과 호캉스를 선물한다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친환경 반려동물용품 브랜드입니다.

Q.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A. 뭐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수한 인내와 노력이 깃들어야 하죠. 일단,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대박이 나는 걸 꿈꾸는 것 보다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진지한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 레미디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생활 전반에서 레미디가 제시하는 것들이 라이프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 **거의 새것처럼 보이는 시트와 이불이 버려지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반려동물들이 그 시트 위에서 잠도 자고 노는 모습을 보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Q.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군인 출신으로서 제2의 삶에 도전할 제대군인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A. 처음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뎠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를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것은 군에서 생활했던 경험과 배움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멋진 경험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곳에 가다

8월호 그곳에 가다는 김대환 님의 추억담을 바탕으로 취재되었습니다.



1 강원도의 다른 해변에 비해 비교적 한적한 남항진해변은 맑고 푸르기로 유명하다.
2 남항진해변은 백사장이 넓고 모래가 고와 가족이 놀기에 좋다.
3~4 남항진해변은 해변을 아늑하게 하는 울창한 소나무숲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림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

눈부시게 푸르른 바다 따라

흐르는 멋과 낭만

강릉

강릉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여행 도시'다. 강릉하면 뭐니 뭐니 해도 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무엇 하나 걸릴 것 없이 탁 트인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쉼을 선사한다.

글 한율 / **사진** 정우철

푸른 바다와 솔향을 품은 남항진해변

강릉시 동쪽 남대천 하구의 섬석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남항진. 이곳에는 한적한 해변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할만한 남항진해변이 있다. 외지인에게 유명한 경포해변, 안목해변 등에 비해 남항진해변은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으로, 강릉의 대표적 트레킹 코스인 바우길의 다섯 번째 구간 중 한곳이다. 사천진리 해변공원에서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 코스는 '바다호숫길'로 불리기도 하는데, 경포해변과 경포호수를 거쳐 초당마을을 지나 남항진까지 총 16km에 이른다.

남항진해변의 매력은 눈부시도록 하얀 백사장과 푸른 빛깔 바다 그리고 솔향이 은은한 솔숲을 꼽을 수 있다. 동해를 지척에 두고 빼곡히 숲을 이룬 소나무는 바다와는 다른 또 다른 쉼을 건네준다. 솔숲 앞에는 여행객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군데군데 놓여 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구입해 나무

군 시절 추억이 담긴 그곳을 소개합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강릉 비행단 포대에서 통신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경포대와 오죽헌으로 유명한 강릉은 여름이면 젊은 청춘들과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남항진해변,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도 그 중 하나입니다. 두 해변 모두 너무 매력적인 곳이라 꼭 한번 들러볼 만합니다.

남항진해변에서는 남항진순대국밥집이 유명합니다. 비행단 소속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곳은 저에게는 선후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안목해변의 커피거리는 식후에 커피를 마시러 자주 들렀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은 엘빈이라는 카페입니다. 커피도 맛있지만 디저트도 유명한 집이라 추천합니다.

- **김대환 님**

알립니다

군 시절 추억이 깃든 여행지나 장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사연 신청을 서두르세요! <다시 웃는 제대군인> 매거진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이 증정됩니다.
이메일 응모: vnet5729@gmail.com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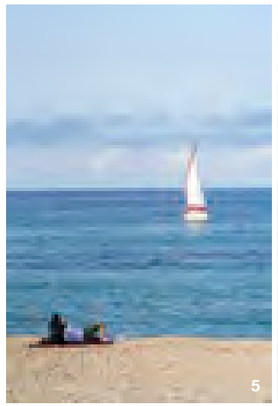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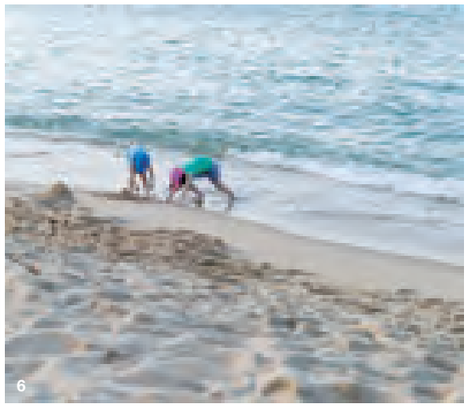
4

그늘진 벤치에 앉아 한없이 푸른 바다, 솔숲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 끊임없이 귓가에 와 닿는 파도소리를 듣다 보면 그 어느 곳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멋진 노천카페를 즐길 수 있다.

남항진해변의 또 다른 명소로는 솔바람다리가 있다.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솔바람다리는 남항진해변과 안목해변을 이어주는 길이 192m의 인도교다. 솔바람다리 위에 서면 강 풍경과 바다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데 한적한 어촌과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그림처럼 곱다. 남항진해변에서는 아라나비 체험도 가능하다. 바다의 순우리말 '아라'와 '나비'를 조합한 아라나비는 바다 위를 나비처럼 훨훨 날아간다는 의미. 600m의 와이어를 따라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맛은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이다. 스릴을 좋아한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5



6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빠져든다, 안목해변

안목해변은 한국관광공사 분석 결과, 지난해 20~30대가 가장 많이 찾은 '핫플'로 꼽혔을 만큼 톡톡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다. 부드럽고 하얀 백사장, 하염없이 푸른 바다, 보트나 패러글라이딩 등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들뜬 함성, 파란 하늘을 나는 갈매기의 여유로운 날갯짓까지 멋과 낭만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 삼아 연인 또는 가족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저장하는 이들, 백사장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감상하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어쩌면 더욱 인상적인 곳이기도 하다.



7

안목해변에는 나무로 된 흔들의자가 곳곳에 놓여 있다. 흔들의자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색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또 '안목' 레터링 조형물을 비롯해 안목해변 곳곳에는 재미있는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조형물이 즐비하다. 멋진 사진으로 추억을 간직하기에 좋다. 해변 옆으로 난 작은 소나무 숲길을 산책해 봐도 즐거우리라.

해변보다 더 유명한 커피거리

안목해변의 커피거리는 강릉의 명소가 되었다. 해변보다 커피거리가 더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해변이라 하면 대부분 횟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을 떠올리지만 안목해변은 카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카페들은 이국적 정취마저 풍긴다.

안목해변과 커피의 인연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릉항과 인접한 탓에 강릉항 수산물시장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자판기커피 한 잔씩을 뽑아 들고 이곳 안목해변을 거닐었다. 해안도로를 따라 80여 대의 자판기가 늘어서 있었고, 그래서 '길카페'로 불렸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바리스타 1세대들이 안목해변에 둥지를 틀면서 카페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커피거리가 조성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유명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등이 셀 수 없이 들어서면서 거리 전체가 카페로 가득하다.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을 마시는 낭만적 풍경은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꿈꾸는 여유다. 안목해변의 커피거리는 카페 어디를 가더라도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커피거리에서 동해의 깊고 푸른 바다와 함께 하는 시간은 안목해변의 풍경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든다.



8



9

5~6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삼은 연인들. 모래놀이를 하며 신이 난 어린이들. 안목해변의 흔한 모습이다.
7 남항진해변과 안목해변을 이어주는 남항진해변의 명소, 솔바람다리.
8 안목해변을 유명하게 만든 커피거리와 엘빈카페
9 안목해변은 지난해 20-30대에게 '핫플'로 꼽혔을 만큼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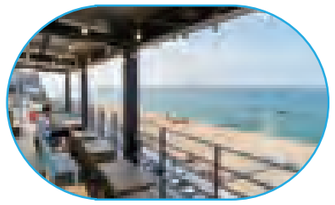
TASTY GANGNEUNG



뜨끈하고 진한 국밥 한 그릇으로 이열치열!

남항진순대국밥

남항진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남항진순대국밥집은 강릉 현지인에게 유명한 로컬 맛집이다. 순대국밥 특유의 비린내 없는 진하고 담백한 국물이 으뜸인데 기호에 따라 부추, 청양고추, 들깨가루, 양념장, 새우젓을 넣고 먹으면 그 맛이 더욱 배가 된다. 국밥은 순대와 고기가 함께 섞인 국밥 말고도 '순대만', '고기만' 넣은 국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순대한접시, 내장한접시, 모듬순대를 판매하는데 명태회 무침과 곁들여 먹는 순대 또한 감칠맛 있다.



탁 트인 테라스에서 바다와 함께 즐기는 커피 한잔의 여유

엘빈

안목해변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엘빈은 2층 테라스와 옥상 루프탑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이곳에서는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커피거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낭만에 맘껏 빠져볼 수 있다. 엘빈은 디저트로도 유명하다. 매일 직접 수제로 만들어지는 케이크, 청포도와 딸기 등을 이용한 과일 타르트가 이곳의 인기 메뉴다.

라떼 이야기

8월호 라떼 이야기는 김광묵 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라떼 이야기'에 자신의 군대 생활 추억이 소개되기를 원하는 제대군인이 있다면 vnet5729@gmail.com에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ILITARY Q&A

시간이 흐른만큼 군대도 변한다

시간이 흐른만큼 군대도 많이 변했다. 그만큼 복무 일수도 줄었다. 라떼 시절에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 요즘 군대를 군대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요즘 군대 진실과 거짓 그 어디쯤에 관한 이야기.

글 편집실

군입대하면 무교도 종교를 갖는다?

입대 후 주말이면 종교행사에 가야 한다는 지휘관들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봤다는 예비역들의 말을 듣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교도 종교를 갖게 된다는 오해가 생기곤 하지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이 개선되었답니다. 군 장병들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

과거 군 시절에는 이른바 '콜렉트콜'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장병이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PC 사용 및 TV 시청도 자유로워 사회 소식을 발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병영의 풍경. 라떼는 말이야 세대에게는 딴 나라 병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수보직은 무조건 신청해야 할 수 있다?

특수보직자들은 따로 군대에서 마련된 주특기 교육 없이 입대 전 사회 경험을 우선해서 뽑습니다. 또한,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 보병으로 들어가도 부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 취사병, 운전병, 의무병 등 특수보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던 일을 마무리 해야만 밥을 먹는다?

군대에도 일과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교육을 한다면 교육 시간과 휴식 시간이 있는 것 처럼요. 혹여 훈련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밥을 못 먹는 일은 없습니다. 나름의 짜인 시스템과 시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사회는 먹는 것으로부터 시간계획이 짜여집니다.

NEWS DESK

이달의 제대군인지원센터 주요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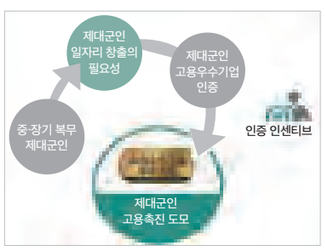
#1

2021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가보훈처는 7월 16일 '2021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설명회'를 인증심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경영인증원 주관으로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해 개최했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장려한 기업을 발굴하고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진중공업 등 제대군인 고용을 선호하고 다수의 제대군인을 채용한 30여 개 기업이 설명회에 참여했으며, 8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증심의 후 10월 제대군인주간에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첫 인증심사로 기업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제대군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목적


2020년 인증현판

#2

국가보훈제도 및 제대군인 지원정책 군부대 홍보

경기북부센터는 7월 7일 육군 55동원지원단을 방문하여 소속 장병 6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제도와 제대군인에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군부대 방문은 전역을 앞둔 장병은 물론 현역 군인들에게 제대군인 모두가 국가보훈의 수혜 대상자임을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정보전달의 취약함을 해결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철저한 방역과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지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현역 때부터 국가보훈의 수혜 대상자로서 전역 후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공유하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군부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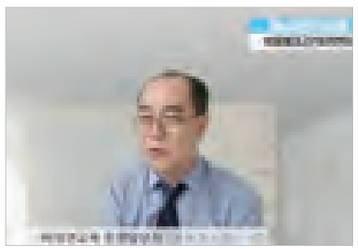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달의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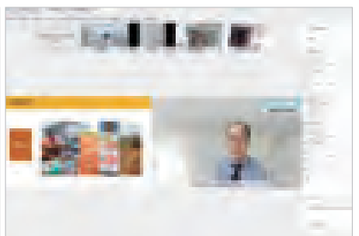
#3

농림축산식품부 협업으로 귀농귀촌 온라인 워크숍 개최

서울센터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역 후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귀농귀촌지원센터와 함께 '귀농귀촌 온라인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농촌 주민과의 갈등 관리(지역융화) △귀농귀촌 성공·실패사례 △농업농촌 이해와 귀농귀촌마인드 확립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성공적인 귀농귀촌 준비 7단계 △농촌문화활동을 매개로한 성공적인 귀농귀촌 △농업경영 실무기초(지역·품목 선택 시 고려할 점) 등 귀농귀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6가지 주제에 대해 6명의 강사가 강의 및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제대군인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귀농귀촌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가 된 이번 3일간의 워크숍은 추후 귀농귀촌 시 '영농 창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4

언택트 채용? 낯설지만 괜찮아!

(기고문, 7월 7일 대전투데이 15면 보도)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협력팀장 이현아

15년 전, 어느 느지막한 봄날! 그 당시 취업박람회 추진 행사로 분주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그때 그랬는데...'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는 표현을 써본다. 지금이나 그때나 취업난의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아니 해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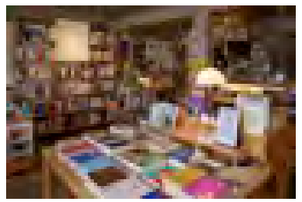
취업박람회장에서 최초로 화상면접이 시도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화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지원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화상면접이 나에게는 신기해 보였고 '과연 이러한 채용방식이 지속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 2021년도 현재의 취업과 채용 시스템은 작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시대, AI 채용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 층은 물론 누구에게나 생소하고 어렵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도 요즘 트렌드인 AI 채용시대에 발맞춰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위해 언택트 면접실과 원활한 코칭을 진행하고자 필요한 화상면접 시스템 장비를 마련하였다. 언택트 면접과 온라인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상담사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앞으로 정기워크숍을 개최하고 언택트 면접 과정에 대한 교육과 코칭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들이 달라진 채용시장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시대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여름을 더욱 특별하게 해줄
특별한 장소

한여름이다. 먼 여행길에 오르지 않더라도 특별한 곳에서 휴가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잠깐의 나들이로 기분 전환을 시켜줄 장소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경성문화사



섬책방
밤수지맨드라미 01

밤수지맨드라미는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를 다룬 다양한 장르의 책은 물론 제주만의 감성을 담은 제품도 함께 파는 곳이다. 2017년 문을 열어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한 곳. 물 좋고 바람 좋은 제주 우도에 있으니 조용히 머물다 가기 좋다.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530(서빈백사 인근)



꽃향기 가득
카페 리리스 02

머무는 공간 자체가 꽃으로 가득 찼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가. 보령 리리스 카페가 그렇다. 예전의 목욕탕 건물을 카페로 개조해 빈티지한 매력이 있다. 보령시 성주면에 위치한 개화예술공원 안에 있으니 볼거리도 풍부하다.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177-2



추억 가득
대동단결 03

대전 대동에 위치한 레트로 감성 물씬 카페다. 가정집을 개조해 만들었고, 공간 곳곳을 그 시절 추억의 물건들로 가득 채웠다. 부모님 세대는 이곳에 들르면 추억에 잠기고, 요즘 세대는 레트로한 매력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간다고 한다.

대전시 동구 백룡로48번길 41-16

QUIZ

독자퀴즈

지난 7월호 내일의 터전에 소개된 고영문 강사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❶ 환경미화원 ❷ 마샬 캐디 ❸ 드론학교 운영자 ❹ 농부

※ 정답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소개된 내용에서 정답을 찾아 응모해 보세요.
※ 응모방법
<다시 웃는 제대군인>지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 또는 QR코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매월 20일까지. 정답·이름·주소·연락처 기재)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통해 메일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 QR Droid Private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메일 앱으로 다시 시도하십시오.

2021년 7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승철(서울 중랑)
성현제(전북 완주)
전 진(전북 군산)

※ 당첨자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 드립니다.

